

# 광주 성인 10명 중 6명 사행행위 경험

광주지역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사행행위를 경험했으며, 각종 도박중독 관련 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광주센터)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년에 1번씩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 올해 광주지역 성인의 사행행위 경험률은 6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활동 모두 경험율과 미성년 사행활동 경험율도 각각 43.1%·39.1%로, 3개 지표 모두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2위인 것으로 조사

## 3개 도박중독 지표서 전국 최상위권 기록 중독률 4.3%·4만9048명 즉시치료 필요 전문가와 빠른 상담 통해 해법 모색해야

광주센터는 올 한해 10대 연령층이 전체 센터 이용자 중 8% 가량을 차지하는 등 젊은 세대의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은경 광주센터장은 "도박중독은 본인 의지만으로 조절하기 힘든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라면서 "도박중독이 의심될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문기관을 찾아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서는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에게나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번없이 1336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네티인을 통한 채팅상담도 이용 가능하다.

최남규 기자

# 과테말라 7세 소녀, 美 구금 27시간 후 사망

미국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사망한 과테말라 이주자 재클린 에머이 로즈메리 칼 매켄(7·여)이 미국 정부의 구금 후 27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재클린이 아빠와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들었으며 땅을 담보 잡혀 불법 브로커에게 돈까지 지불했지만 비보가 날아왔으며 슬퍼했다.

15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산 안토니오 데코르테스에 있는 집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족들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재클린이 난생 처음으로 신발 한 켤레를 선물 받았으며 아빠와의 미국행(行)에 기대가 컸다고 전했다.

친척들은 동네 한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클린 부녀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리는 땅을 담보 잡혀 돈을 빌려 불법 브로커에게 전달했으며 일주일 정도의 여정에 거쳐 미국 국경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밤 재클린 부녀는 미국 출입국 당국에 의해 다른 불법 이주자들과 함께 구금됐다. 미 영사는 7일 재클린이 건강해 보였으며 아버지 네리 역시 딸이 건강하다는 양식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163명의 불법 이주자들을 관리하는 정부 관계자는 단 4명 뿐이었으며 이들은 1대의 버스로 가장 가까운 150km를 이동해야 했다.

부녀는 순서를 기다렸으며 구금 8시간 뒤 버스에 탑승했다. 하지만 직후 재클린은 토하기 시작했으며 네리는 운전사에게 딸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재클린은 90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으며 국경순찰대 사무소 도착 직후 숨을 멈췄다. 응급구조대가 긴급 소생시켰고 헬기로 텍사스주 엘패소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클린이 토하기 시작한 지 19시간 구금된 지 27시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재클린은 뇌와 간 기능이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 작업에 착수했으며 결과는 몇 주 뒤 나올 예정이다.

# 인도군, 반정부 시위대에 총격...7명 이상 사망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군이 반정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7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군은 15일(현지시간) 인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발사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사망자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시위대가 위험하게 근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중을 향해 군이 직접적으로 총격을 가했다며 비난했다. 시위대는 "이번 사건은 인도 정책의 일부"라고 비난하며 3일 간의 애도 기간을 표명했다.

한 주민은 "무장한 차량을 탄 군인들이 분장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민간인들에게 총을 쏘다"며 "10대 소년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지역으로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 이집트 기자지역서 4400년된 피라미드 발견

이집트 문화재부는 기자지역 피라미드 지구 부근의 사카라 네크로폴리스에서 5대왕조시대 왕실사제의 "예외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피라미드 무덤을 발견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칼레드 알아나니 장관은 "구 왕조시대의 이 옛 무덤은 보존 상태가 완벽하며 무덤 주인과 모친, 아내와 가족들을 그린 색채화와 장식품으로 벽들이 장식되어 있다. 또 망자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거대한 채색 조상들이 세워져 있는 벽이 모든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신화통신에게 말했다.

구 왕조시대는 피라미드 시대'로도 알려져 있는 기원전 2686~2181년의 이집트 왕조를 말한다. 문화재 장관은 이번 발견은 이집트 고고학 발굴 팀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 피라미드의 무덤주인은 네페르 이트-카에 왕조의 왕궁 사제 '와히티에(Wahytie)'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발굴단장은 말은 이집트 문화재위원회의 모스타파 와지리 사무총장은 이 피라미드의 발굴은 11월의 제 2차 발굴 작업에서 전면 파사드까지 파 내려갔으며 그 이상은 문들이 밀려져 있어 내부 접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 겨울 산행 안전사고 94% '골절·상처'

겨울철 국립공원 산행 중에는 탈진·경련보다 골절·상처 등 체력에 맞지 않는 탐방계획을 세웠거나 무리하게 산에 올라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1080건 가운데 겨울철(12월~2월) 피해 건수는 16.8%인 181건이었다.

181건 중 골절이 59%인 107건, 상처가 36%인 63건 등으로 골절과 상처를 합하면 전체의 94%(170건)에 달했다. 탈진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6%인 11건으로 집계됐다.

사계절 내내 발생하는 골절·상처 사고 비율이 78%인 점을 고려하면 겨울철 골절과 상처 피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년간 사망 사고 111건 중 등산 사고는 2.7%인 3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해 공단은 보온유지 방한용품의 제대로 갖추지 않고 폭설이나 강풍, 한파 중에 무리하게 산행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겨울철 산행은 추위와 눈길 때문에 체력소모가 많고, 폭설·강풍 등 예측하기 힘든 기상변화가 많다.

이에 공단은 산행 전 반드시 기상 정보 확인과 겨울철 산행에 필요한 아이젠이나 각반(스피츠) 등 안전장비를 비롯해 방한복, 모자, 장갑 등 겨울용 산행용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2~3명이 함께 산행해야 한다. 일몰시간을 고려해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하산하는 게 좋다. 암릉·암벽 구간은 산행은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겨울을 기다렸다...빙어냥는 가족 16일 얼음 낚시에 나선 시민들이 강원 춘천호에서 빙어를 낚고 있다. 최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로 춘천호 수면이 10cm 이상 두껍게 얼어붙으면서 강태공들이 물러들고 있다.

# 강진의료원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의사 연봉·휴진 맞대로 하고 제약사 접대받아

강진의료원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결과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14일 부실경영 및 비리의혹이 제기된 강진의료원에 대한 특정종합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 총 1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회수 1억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강진의료원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의사직 직원 14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명시적인 근거없이 연봉 8800만원~3억 2000만원을 독단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 1월 부터 발생한 사무 및 보건직 4급 승진인사를 별 다른 사유없이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유예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복무규정에 없는 무급휴가 조치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형외과 등 6개 진료 과목 의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원정의 임의 허가에 의해 정기적 으로 주 또는 격주 진료휴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환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려이는데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